



다솜 사랑

Volume 5, Number 2

2009년 1월 31일

다솜 사랑
Vol. 5, No. 2 (제20호)
펴낸이: 교장 최미영
엮은이: 교사 임강주

학교장 인사말씀

지난 1월 중에는 육이오 한국 전쟁의 참전국의 하나였던 필리핀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1960년대 한국에 비해 국민소득도 3배가 넘는 아시아의 선진국이었다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동남아시아의 나라 중에서도 못사는 나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필리핀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를 포함한 1세대가 우리 2세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마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가운데 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새해는 역시 소망과 설렘이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는 다솜한국학교가 개교한 지 만 5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젖도 떼고 발걸음도 험차게 뛰어다니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입니다. 도약하고 전진하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5년을 되새기며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을 보내면서 제 기억에 남는 일 중의 하나는 우리 다솜도 한 마음이 되어 베이 지역의 다른 학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요코야기 이야기를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 읽기 교재에서 퇴출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힘들을 모아 큰 힘이 되어 그동안 마음의 짐이 되어 왔던 요코야기 이야기를 퇴출시킨 일은 우리 한인 1세대들이 2세들의 앞날을 위해 꼭 해내야 했던 일인 만큼 그 기쁨이 컸습니다.

우리가 누린 큰 기쁨과 함께 우리가 또 앞날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또 다른 요코야기 이야기의 출현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2세들에 대한 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세들이 자신의 뿌리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고 각 자의 재능을 살려서 미국 사회에서 각 자의 목소리를 내며 살아가도록 돕는다면 우리 1세대가 2세대에게 줄 수 있는 일중에서 요코야기 퇴출보다도 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를 이루기 위해 현실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정직하고 친절하며 질서를 지키며 사는 모습을 우리 선생님들과 어른들이 함께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개교 5주년을 맞이하여 학생들을 이러한 길로 인도해 가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학교와 선생님들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3월 생일 학생 : 김민하, 남석, 신세경, 신애경, 임재순, 조민기

4월 생일 학생 : 김정연, 정현준, 최윤아, 진주, 모크세스



교단일지

부모님과 선생님

황현경 선생님 (신라반)



책을 읽을 줄 알면서도
읽지 않은 사람은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보다 별
반 나을게 없다.

Mark Twain (1835-1910)

어느덧 한국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초보 교사일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땐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몰라 막막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노하우가 생겨집니다.

지금 알고 있는 반은 신라반으로 킨더가튼과 1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한글을 깨치려 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좀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까, 좀 더 빨리 한글을 뿔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한 주 한 주를 보냅니다.

단지 한글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은 욕심도 많습니다. 한국의 훌륭한 문화 유산과 배우기에 그다지 유쾌하지만은 않은 역사와 현재의 한국의 모습과 문화도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한국인 2세로써의 정체성도 심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싶은 것, 알려 주고 싶은 것 모두를 아이들에게 전하기에 토요일 세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한글도 한국말도 문화와 역사도, 정체성도 한국학교에서의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한국학교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한국인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저의 이 곳 미국 생활은 아직 채 10년이 되지 않았기에 이민 생활이라든지 한국인 2세로서의 정체성이라든지 하는 것을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 강의,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잘 아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간단한 말이라도 조금씩 한국말을 쓰게 한다든지, 매일 한 권의 한국 책을 읽어 준다든지, 아이들이 커 감에 따라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한글 단어의 수준은 높여 준다든지... 매일 아이들에게 조금씩 전해주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부모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요.

이 글을 쓰면서 제 자신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집니다. '난 미국 사람이예요' 가 아니라, '난 한국인 2세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 영어를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한국어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아이, 한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겠다고...

점심 봉사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정기 교사 회의를 위해서 점심 봉사를 해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는 2월과 3월에 점심 봉사를 해 주실 반의 이름입니다.

2월: 고조선반

3월: 고구려반



다솜 교실(백제반)

비오는 날

조룩조룩 조룩조룩 비가 내리네,

자전거 타려해도 탈 수가 없네.(양희선)
 비가 많이 내려서 수영을 못 해요. (원수빈)
 진짜로 젤리빈이 막 떨어지네.(송푸른)
 날씨가 추워졌는데. (조수연)
 풍당풍당 웅덩이가 점점 커지네. (윤하나)
 옆에 있던 나무들도 춤을 추네. (장시은)
 비가 너무 빨리 오네. (임종현)
 장난감 찾아도 하나도 없네. (조성연)

놀이터 가려해도 갈 수가 없네. (양희선)
 나는 친구 집에 갈래요.(원수빈)
 하늘에서 젤리빈이 내려 올까 말까. (송푸른)
 아이가 하나도 없네.(조수연)
 풍당풍당 웅덩이에 물이 고이네.(윤하나)
 들에 핀 꽃들이 활짝 웃네.(장시은)
 비가 많이 오네.(임종현)
 친구가 안 노네.(조성연)

쭈룩쭈룩 쭈룩쭈룩 비가 막 오네.



아무리 기다려도 그치질 않네. (양희선)
 나는 방에서 책을 읽어요.(원수빈)
 밖에 나가 젤리빈 남남 먹었네. (송푸른)
 친구가 하나도 없네. (조수연)
 참방참방 아이들이 밝고 지나네.(윤하나)
 날개가 젖을까 꽃잎으로 감싸주네. (장시은)
 진짜 지겹네. (임종현)
 집에서 놀면 더 좋겠네. (조성연)

주룩주룩 주룩주룩 비가 더 오네.

엄마 옆에 앉아서 책이나 읽자.(양희선)
 나는 동생과 같이 게임을 해요.(원수빈)
 배가 아파 땡구르르 구르네. (송푸른)
 엄마와 공부나 하자. (조수연)
 참병참병 아이들이 물장난 하네. (윤하나)
 빗소리에 모두다 잠들어 버리네. (장시은)
 눈도 오네. (임종현)
 요리나 하자.(조성연)

쭈룩쭈룩 쭈룩쭈룩 비가 오는데



우리들의 이야기와 솜씨

습관

신애경 (대한민국반)

.한글 학교에서 '습관'이라는 시를 배웠습니다.

어떤 이가 작은 습관을

하나 만들었다.

그는 그것을 늘 끌고 다녔다.

그 습관이 자라서

큰 습관이 되었다.

그는 지금 그 큰 습관에

끌려 다닌다.

이 시를 읽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에게도 제가 끌려 다니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잠부터 잡니다. 한참 자다가 일어나면 벌써 깜깜한 밤입니다. 한번은 잠이 반쯤 깬 상태에서 숙제를 부랴부랴 겨우 마쳤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책상 위에 그냥 놔 두고 그대로 이불 속으로 들어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급하게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하고 나서 숙제를 깜박 잊고 가방에 넣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 갖다 달라고 부탁하러 달려 갔지만 이미 아버지의 차는 떠나고 없었습니다. 결국 숙제는 내지 못하고 어머니께 정신없이 산다고 야단만 맞았습니다.

저는 숙제에서 많은 문제를 틀리기도 합니다.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서둘러 숙제를 끝내려 하다보니 대충대충 문제를 풀기 때문입니다. "네가 정신만 차리고 했다면 이런 쉬운 문제를 틀렸겠니?" 어머니는 늘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숙제를 끝내고 나면 그제사 잠에서 깨어 납니다. 내일을 위하여 빨리 자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눈은 말뚱해지고 침대에서 이리 덩굴 저리 덩굴 하다 겨우 다시 잠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잠이 부족하고 그 다음 날 집에 오기 바쁘게 잠부터 잡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훨씬 할 일이 많아질텐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니?" 어머니는 가끔 걱정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더 질질 끌려 다니기 전에 이 습관을 고쳐야겠습니다. 할 일부터 해 놓고 제 시간에 푹 잠을 자는 바른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구 솜씨 일까요 ?

이번 학기에 뜨개질 반에서는 손뜨기, 방울 만들기, 코바늘로 사슬 뜨기, 짧은 뜨기를 배웠습니다.



뜨개질 반 아이들: 윤하나, 장시은, 양희선, 송푸른, 원수빈, 이관희, 신세경, 김민희, 원윤지, 이수현, 권예림, 박미소, 최윤아, 홍희연, 임계순, 임재인



설날에 다솜에서는 ...



왼쪽 위에서부터: 이준희, Minami 유지, 정인하, 김규민, 서준호, Thia진주, 최지현, 노다익, 이기원, Thia공주

설날을 맞이하여 이번 색종이접기 시간에는 한국의 고유 명절인 설날에 있었던 풍습이나 먹었던 음식에 대해 배우고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색종이로 직접 한복을 접어 붓으로 치마저고리의 배색(유사색 대비와 반대색 대비)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다솜 2009년 봄 학기 일정

Volume 5, Number 2

날짜	학사 일정 및 행사
3월 14일	개교 5주년 기념식
3월 21일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3월 21일	북가주 교사 연수회
4월 11일	부활절 휴강
4월 18일	한국어 능력시험
5월 9일	북가주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5월 23일	메모리얼 데이 휴강
6월 6일	종강식 및 특활반 발표회



다솜한국학교
 Dasom Korean School
 1494 California Circle
 Milpitas, CA 95035
 Phone: 408-934-3600
 Fax: 408-934-1092
 info@dasomks.org

봄 학기 개강은 2월 7일입니다.
 봄 학기에 다시 만나요~~



다솜 2008년 가을 학기 앨범



가을 운동회(2008년 9월 20일)



동요반 특활시간



신애경학생 미주한인 문예 공모전 은상
 (2008년 12월 6일)



태권도반 특활시간



종이접기반



설날 행사 (2009년 1월 24일)